

20대 남성의 하반신 체형별 신체인식에 관한 연구

은 영 자 · 김 선 혜[†]
계명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A Study on Physical Recognition of Men in Their Twenties by Body Shape of the Lower Parts of the Body

Young-Ja Eun and Sun-Hye Kim[†]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2004. 3. 25. 접수 : 2004. 5. 22.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356 men in their twenties to investigate their recognition of their bodies. Also physical measurements were conducted on them and the lower parts of the bodies were classified into several types. The study examined the relevance of the subjects' recognition of their bodies to the physical types of the lower parts of the body.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are four factors that constitute the physical shapes of the lower parts of the body and the lower parts of the body are classified into three physical types by cluster analysis.

In terms of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lower parts of the body shapes, the respondents' recognition of their bodies was similar to the actual measurements except for heights and leg lengths regardless of physical types, showing that they recognized well their actual physical types. With respect to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body types, the surveyed were dissatisfied with thick circumference items and short length items.

The actual measurements and the degree of recognition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in almost all the items while the actual measurements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in the circumference items.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height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almost all measurements, demonstrating that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the males in their twenties with the lower parts of body has closer correlations with the height items of the actual measurements than the circumference items.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bodies was more dependent on people's recognition than the actual measurements.

Key words: age group(연령), physical recognition(신체인식), physical characteristics(신체특성).

I. 서 론

신체 인식도는 자신의 신체형에 대해서 주관적 ·

정신적인 인식을 말하며, 신체 만족도는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만족, 불만족을 말한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신체형 · 신체상에 대해 만족을 하지 않으며, 이러한 인식은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이 남성보

[†] 교신저자 E-mail : sh9590@hanmail.net

다 더 불만족한다.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본인의 체형이 사회적으로 인지되는 이상적인 신체상과 차이가 많이 생길수록 커지며 이상체형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의복 등의 여러 수단을 사용하거나 그들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의복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 한다.

정인희, 이은영¹⁾은 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자기 이미지는 실제로 자신이 그러하다고 믿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라고 하였으며, 정재은²⁾은 20대 여성의 신체만족도는 신체부위의 실제 측정치보다는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정원, 윤종희³⁾는 20대 남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나체상태와 외모관리후의 신체만족도 차이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신체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외모 관리 후 남성이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신체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안성원⁴⁾은 성인 남성들은 신체에 만족할수록 기성복 사이즈에 만족하며, 특히 하체 부위와 길이항목에 만족할수록 바지길이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또 신체의 무게항목에 만족할수록 기성복의 허벅지둘레, 엉덩이둘레, 허리둘레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창현⁵⁾은 남자 대학생들은 외모에 어느 정도의 관심은 있지만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복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신체 보완을 위한 적절한 의복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의복 선택 시 영향을 미치며, 의복을 통해 신체적으로 안정감을 얻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심리학적인 측면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들이다. 그러므로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인식과 실제 체형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최근 남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성인 남성의 체형연구가 주로 상반신 체형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반신 체형연구도 아직

성장기의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성장이 완료되는 시기인 20대 남성의 하반신 체형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자신의 하반신에 대한 인식을 설문지 조사하고 신체 측정을 통하여 실제 체형과 자신의 신체인식과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의복착용자의 체형에도 적합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의복제작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임의 표본추출법에 의해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만 18~26세 남성 356명을 대상으로 2001년 6월부터 11월에 걸쳐 하반신 부위에 대한 직접 측정과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1) 설문지구성

설문지는 자신의 하반신 체형에 관한 인식 및 만족도조사를 위하여 하반신 체형 중에 슬랙스 제작에 실제로 필요한 치수와 일반인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부위로 10문항을 선택하였다. 하반신 체형에 관한 인식도 항목에서는 '작다, 가늘다, 짧다'라는 크기가 작다는 인식을 갖는 경우에 5점 척도 중 1점으로 평가하고 반대로 '크다, 굵다, 길다'라는 크기가 크다는 인식을 갖는 경우에는 5점으로 평가하였다. 만족도 항목에서는 불만족에 1점을, 만족에 5점으로 평가하였다.

2)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

측정항목은 20대 남성의 하반신 형태 파악과 슬랙스 제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으로 선행연

1) 정인희, 이은영, "의복과 자기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0권 1호 (1996), p. 207.

2) 정재은, "20대 여성의 실제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권 3호 (1993), p. 107.

3) 김정원, 윤종희, "나체상태와 외모관리 후의 신체만족도 차이: 20대 남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권 2호 (1999), pp. 129-131.

4) 안성원, "성인 남성의 신체만족도와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84.

5) 김창현, "남자대학생의 신체의식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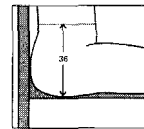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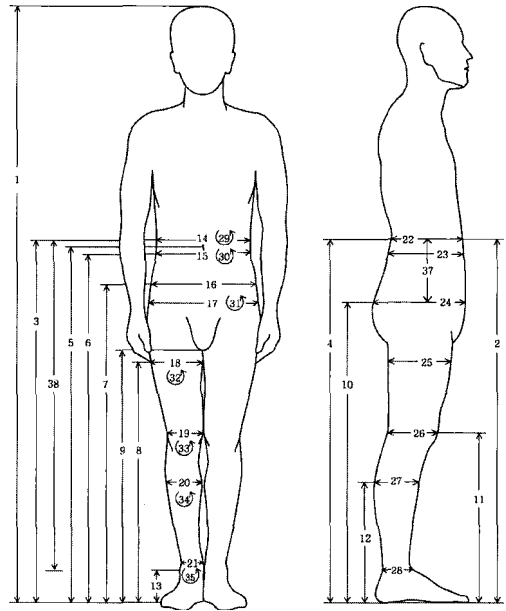
구를 참고하여 선택한 총 44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부위별 항목으로는 높이 13항목, 너비 8항목, 두께 7항목, 둘레 7항목, 길이 3항목, 지수치 5항목, 기타 1항목의 총 44항목이다. 측정방법은 <표 1>,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측정방법은 한국표준과학기술원의 의복설계를 위한 인체측정(KS A-7003)의 용어와 인간 공학적 설계를 위한 인체 측정(KS A-7004)의 측정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측정용구는 Martin인체 측정기와 체중계, waist line tape, land mark용 스티커를 사용하였으며, 피험자는 무릎길이의 흰색 타이즈를 착용하고 발꿈치는 붙이고, 허리에는 waist line tape을 두르고 측정하였다.

3. 연구내용 및 분석 방법

하반신 체형의 형태특성 및 신체 인식의 자료분석은 Windows SPSS 10.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1) 하반신 체형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



<그림 1> 신체 측정 부위.

<표 1> 신체 측정 항목

	측정 항목				
높이	1. 키 2. 앞허리높이 3. 옆허리높이 4. 뒤허리높이 5. 배꼽높이 6. 배높이 7. 위앞엉덩뼈가시점높이 8. 넓다리높이 9. 살높이 10. 엉덩이높이 11. 무릎높이 12. 장딴지높이 13. 바깥복사점높이				
	너비	14. 허리너비 15. 배너비 16. 위앞엉덩뼈가시점너비 17. 엉덩이너비 18. 넓다리너비 19. 무릎너비 20. 장딴지너비 21. 발목너비			
		두께	22. 허리두께 23. 배두께 24. 엉덩이두께 25. 넓다리두께 26. 무릎두께 27. 장딴지두께 28. 발목두께		
			둘레	29. 허리둘레 30. 배둘레 31. 엉덩이둘레 32. 넓다리둘레 33. 무릎둘레 34. 장딴지둘레 35. 발목둘레	
				길이	36. 밑위길이 37. 엉덩이길이 38. 바지길이
					지수치
	기타	44. 체중			

- 계로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였다.
- 신체 측정치를 주성분분석에 의해 인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베리맥스법에 의해 직교회전하였다.
 - 하반신 체형의 유형을 나누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류된 유형들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군집간의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 유형에 따른 신체 인식의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 유형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20대 남성 356명을 대상으로 직접 측정된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측정결과와 1997년 국민표준체위조사 보고서의 측정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2〉 측정치 및 계산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량
(단위:cm, kg)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1. 키	172.4	5.54	158.1	190.0
2. 앞허리높이	107.4	4.75	95.0	124.0
3. 옆허리높이	106.7	4.47	96.8	121.5
4. 뒤허리높이	106.2	4.42	96.0	120.7
5. 배꼽높이	101.3	4.14	88.8	114.7
6. 배높이	101.2	4.93	88.5	120.8
7. 위앞엉덩뼈가시점높이	94.6	4.01	84.1	106.0
8. 넓다리높이	68.8	4.05	58.2	82.8
9. 살높이	76.7	3.48	66.8	86.8
10. 엉덩이높이	85.4	3.68	74.5	97.0
11. 무릎높이	45.9	2.53	34.4	54.2
12. 장딴지높이	33.6	2.09	29.1	42.5
13. 바깥복사점높이	6.8	0.51	5.7	8.6
14. 허리너비	26.3	2.12	20.4	35.5
15. 배너비	27.7	2.59	21.0	38.9
16. 위앞엉덩뼈가시점너비	28.9	2.14	24.1	38.3
17. 엉덩이너비	32.5	1.80	28.6	37.5
18. 넓다리너비	16.4	1.46	13.0	21.8
19. 무릎너비	10.6	0.97	8.0	13.5
20. 장딴지너비	10.9	0.96	8.2	13.1
21. 발목너비	5.2	0.64	3.4	8.2
22. 허리두께	19.3	2.02	15.2	27.6
23. 배두께	19.2	2.00	15.3	26.5
24. 엉덩이두께	21.9	2.16	11.2	28.6
25. 넓다리두께	17.1	1.97	11.5	24.0
26. 무릎두께	11.7	1.01	9.2	18.3
27. 장딴지두께	11.1	1.00	7.6	13.7
28. 발목두께	7.3	0.80	5.0	9.5
29. 허리둘레	76.3	6.20	63.5	102.8
30. 배둘레	78.5	7.06	67.2	106.8
31. 엉덩이둘레	93.4	5.85	65.4	114.3
32. 넓다리둘레	54.3	4.58	40.0	71.5
33. 무릎둘레	37.1	2.45	25.6	49.0
34. 장딴지둘레	37.4	2.54	30.7	46.3
35. 발목둘레	22.2	1.62	11.6	26.4
36. 밑위길이	27.7	2.18	22.5	35.0
37. 엉덩이길이	23.3	2.11	17.2	30.0
38. 바지길이	101.9	4.38	92.0	114.6
39. 허리편평율(%)	73.4	4.63	63.9	88.6
40. 배편평율(%)	69.3	4.75	59.1	86.7
41. 엉덩이편평율(%)	37.4	5.14	35.2	79.5
42. 넓다리편평율(%)	104.1	7.12	73.7	121.1
43. Röhrer지수	1.30	0.16	1.00	2.10
44. 체중	66.8	9.73	50.5	106.0

본 연구의 측정연령층과 가장 연령이 유사한 만 18세에서 24세의 남성의 대표항목의 측정치를 비교한 결과 본 연구의 측정치가 허리둘레를 제외한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1. 하반신 체형에 대한 인자분석

하반신 체형을 구성하는 인자를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Scree test 결과 4개의 인자가 추출되었으며 누적 기여율은 72.84%이다.

인자 1은 총 18항목에서 높게 부하되었으며, 허리둘레, 배둘레, Röhrer지수, 체중, 넓다리둘레 등의 둘레항목과 그에 관련된 항목에서 부하량이 크게 나타났다. 이 인자의 특징은 인체의 횡적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둘레항목, 너비항목, 두께항목을 나타내는 인자로 분석된다. 인자1의 고유치는 20.56이며, 전체 변량의 46.72%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인자 2는 총 14항목으로 키, 옆허리높이, 뒤허리높이, 배꼽높이, 위앞엉덩뼈가시점높이, 엉덩이높이, 바지길이 등의 항목에서 부하량이 크게 나타났다. 이 인자의 특징을 인체의 종적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높이항목, 바지길이항목을 나타내는 인자로 분석된다. 인자 2의 고유치는 7.43이며, 변량의 기여율은 16.88%이다.

인자 3은 총 6항목으로 발목두께, 발목너비 등의 항목에서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 인자의 특징은 무릎에서 발목부위의 너비와 두께항목을 나타내는 인자로 분석된다. 인자3의 고유치는 2.39, 변량의 기여율은 5.43%이다.

인자4는 허리편평율과 배편평율로 고유치는 1.67, 변량의 기여율은 3.81%이다.

2. 군집분석에 의한 하반신 체형분류

하반신을 몇 개의 특징적인 체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인자분석을 한 결과 얻어진 인자점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하반신을 모두 3개의 체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인자점수에 의해 분류된 각 체형의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체형별 인자점수, 인자분석에 사용된 항목에 대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각 체형별 측정치는 〈표 6〉과 같다.

<표 3> 대표측정항목비교: 본 연구와 국민표준체위조사

(단위: cm, kg)

	키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체중	Röhrer지수
본 연구	172.4	76.3	93.4	66.8	1.30
국민표준 체위조사 (1997년)	171.3	76.7	91.5	64.0	1.27

<표 4> 인자와 인자부하량

변수명	인자부하량			
	인자 1	인자 2	인자 3	인자 4
43. Röhrer지수		-.23	.09	.14
29. 허리둘레		.18	.06	.26
30. 배둘레		.26	.12	.24
44. 체중		.42	.24	.07
32. 넓다리둘레		.18	.28	.04
14. 허리너비		.22	.32	.09
31. 엉덩이둘레		.41	.13	.05
15. 배너비		.29	.27	.06
25. 넓다리두께		.12	.37	-.01
23. 배두께		.13	.19	.56
34. 장딴지둘레		.28	.33	-.07
16. 위앞엉덩뼈가시점너비		.35	-.02	-.01
22. 허리두께		.10	.25	.56
24. 엉덩이두께		.09	.38	.17
18. 넓다리너비		.25	.47	-.01
33. 무릎둘레		.40	.14	-.03
17. 엉덩이너비		.48	.33	-.03
35. 발목둘레		.24	.24	-.13
41. 엉덩이편평율	.45	-.24	.26	.24
42. 넓다리편평율	.39	-.12	-.02	.00
5. 배꼽높이	.08		.17	-.09
3. 앞허리높이	.25		.20	.01
38. 바지길이	.22		.21	.03
10. 엉덩이높이	.09		.16	-.11
1. 키	.13		.23	-.07
2. 앞허리높이	.26		.16	.07
4. 뒤허리높이	.22		.28	.03
9. 살높이	-.02		.28	-.11
7. 위앞엉덩뼈가시점높이	.04		.06	-.15
6. 배높이	.09		.16	.05
11. 무릎높이	.18		.06	-.15
8. 넓다리높이	.14		-.13	-.02
12. 장딴지높이	.08		.20	-.00
13. 바깥복사점높이	.32	.47	-.09	-.03
36. 밑위길이	.37	.40	.13	.08
37. 엉덩이길이	.30	.39	.14	.25
21. 발목너비	.21	.23		-.02
28. 발목두께	.26	.21		.03
19. 무릎너비	.47	.17		.13
27. 장딴지두께	.48	.26		-.02
20. 장딴지너비	.55	.21		-.03
26. 무릎두께	.31	.36		.00
39. 허리편평율	.18	-.12	.02	
40. 배편평율	.04	-.19	-.08	
고 유 지	20.56	7.43	2.39	1.67
변량기여율(%)	46.72	16.88	5.49	3.81
누적기여율(%)	46.72	63.6	69.03	72.84

〈표 5〉의 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총 4항목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체형 1은 인자 3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며 인자 4는 음의 값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낸다. 인자 1에서 음의 값을 나타내므로 허리, 배 등의 부위가 가늘고, 체중도 약간 가벼운 체형이다. 인자 2의 값은 양의 값으로 키와 하반신 체형의 길이가 평균과 비슷한 체형이며 인자 3의 값이 크므로 무릎에서 발목부위의 굵기는 평균보다 굵은 체형이다. 인자 4의 값은 음의 값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허리와 배부위는 납작한 체형이며, 평균형에 가까운 체형이라 할 수 있다.

체형 2는 인자 1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고 있어 유형 중 하반신 체형이 가장 굵고 체중도 무거운 체형이다. 인자 2의 값은 음의 값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어 키와 하반신 체형의 길이는 평균보다 짧은 체형이다. 인자 3은 음의 값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어 하반신 체형은 굵지만 무릎아래 부위는 가는 체형이며, 허리와 배부위는 등근 체형이라 할 수 있다.

체형 3은 인자 1에서 음의 값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유형 중 하반신 체형이 가장 가늘고 체중은 가벼운 체형이다. 인자 2, 인자 3, 인자 4에서는 세 유형 중 가장 큰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키와 하반신 체형이 길고 무릎아래부위는 굵으며, 허리와 배부위는 등근 체형임을 알 수 있다.

〈표 5〉 하반신 체형별 인자점수

체형 인자	체형 1 (168명)	체형 2 (50명)	체형 3 (138명)	F-value
인자 1	-.11 B	1.55 A	-.43 C	125.57***
인자 2	.01 B	-.86 C	.30 A	28.39***
인자 3	.10 A	-.50 B	.06 A	7.50**
인자 4	-.79 C	.31 B	.83 A	235.58***

** : $p < 0.01$, *** : $p < 0.001$.

Duncan test결과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

이상에서 살펴 본 20대 남성의 체형별 체형의 특성을 〈표 7〉에 요약하였다.

3. 하반신 체형별 인식도와 만족도

20대 남성의 하반신 체형별 인식도와 만족도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면 Duncan test 결과 인식도는 밑위 길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만족도는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발목둘레, 다리길이, 체중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체형 1은 실제 체형이 평균과 가장 비슷한 체형으로 하반신 체형에 대한 인식은 2.82에서 3.12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둘레항목, 길이항목, 체중에 대해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만족도는 2.50에서 3.17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대체로 모든 항목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 2는 실제 체형이 가장 굵고 길이도 짧은 체형으로 하반신 체형에 대한 인식도는 2.52에서 4.00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둘레항목은 굵고 다리길이와 키는 작으며 체중은 무겁다고 인식하고 있다. 만족도는 2.12에서 3.28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발목둘레, 밑위길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불만족하고 있다.

체형 3은 실제 체형이 가늘고 긴 체형으로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는 2.62에서 2.91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보통에 가까운 인식을 하고 있다. 만족도는 2.62에서 3.16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대체로 모든 항목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20대 남성은 체형에 관계없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이 실제 체형과 비슷하게 나타나 자신의 실제 체형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에서 둘레항목이 굵고 길이항목은 짧은 것에 불만족하였다. 따라서 20대 남성은 키가 크고 둘레는 가는 체형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4. 측정치와 인식도, 만족도의 상관관계

20대 남성의 실제 측정치와 인식도와의 상관관계는 〈표 9〉와 같다. 인식도는 실제측정치와 거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 상관이 나타났다. 배둘레, 엉덩이둘레, 넓다리둘레에 대한 인식은 실제 측정치의 둘레항목, 너비항목, 두께항목, 체중, Röhler지수와

<표 6> 하반신 체형별 측정 지수

(단위:cm, kg)

측정부위	체 형			F-value
	체형 1	체형 2	체형 3	
1. 키	172.7 A	168.4 B	173.5 A	17.31***
2. 허리앞높이	107.1 A	105.5 B	108.4 A	7.91***
3. 허리옆높이	106.6 A	104.6 B	107.6 A	8.08***
4. 허리뒤높이	106.1 A	103.9 B	107.1 A	10.31***
5. 배꼽높이	101.7 A	98.0 B	102.0 A	21.08***
6. 배높이	101.4 A	97.9 B	102.2 A	15.54***
7. 위앞엉덩뼈가시점높이	95.1 A	91.7 B	95.2 A	16.82***
8. 넓다리높이	68.8 A	67.0 B	69.5 A	7.21**
9. 살높이	77.1 A	73.5 B	77.4 A	28.65***
10. 엉덩아높이	85.6 A	82.8 B	86.1 A	16.64***
11. 무릎높이	46.0	45.3	45.9	1.61
12. 장딴지높이	33.6 A	33.0 B	33.8 A	2.89
13. 바깥 복사점높이	6.9	6.7	6.8	1.11
14. 허리너비	26.0 B	28.4 A	26.0 B	32.97***
15. 배너비	27.6 B	30.0 A	27.1 B	23.81***
16. 위앞엉덩뼈가시점너비	28.9 B	30.7 A	28.2 C	29.37***
17. 엉덩이너비	32.5 B	33.2 A	32.2 B	6.41**
18. 넓다리너비	16.4 B	17.4 A	16.1 B	14.79***
19. 무릎너비	10.5	10.8	10.6	1.39
20. 장딴지너비	10.9 B	11.2 A	10.8 B	3.72*
21. 발목너비	5.3 A	5.0 B	5.2 A	4.23*
22. 허리두께	18.3 A	21.6 A	19.7 B	77.95***
23. 배두께	18.2 C	21.4 A	19.6 B	83.64***
24. 엉덩이두께	21.6 B	23.8 A	21.6 B	24.00***
25. 넓다리두께	17.0 B	19.0 A	16.5 B	35.31***
26. 무릎두께	11.7 AB	11.4 B	11.8 A	2.45
27. 장딴지두께	11.1 AB	11.4 A	11.0 B	2.17
28. 발목두께	7.3	7.1	7.2	1.53
29. 허리둘레	74.4 B	84.7 A	75.5 B	79.54***
30. 배둘레	76.6 B	86.9 A	77.7 B	55.94***
31. 엉덩이둘레	92.8 B	97.8 A	92.5 B	18.22***
32. 넓다리둘레	53.7 B	59.1 A	53.3 B	38.89***
33. 무릎둘레	37.0 B	38.5 A	36.6 B	11.31***
34. 장딴지둘레	37.4 B	39.5 A	36.8 B	22.67***
35. 발목둘레	22.3 B	22.9 A	21.7 C	11.62***
36. 밑위길이	27.5	27.9	27.8	0.94
37. 엉덩아길이	23.0 C	23.4 AB	23.7 A	4.04*
38. 바지길이	101.9 A	99.5 B	102.7 A	10.38***
39. 허리편평율	70.6 B	76.1 A	75.9 A	86.33***
40. 배편평율	65.0 B	71.9 A	72.4 A	139.06***
41. 엉덩이편평율	66.5 B	71.4 A	67.2 B	20.40***
42. 넓다리편평율	104.0 B	109.3 A	102.3 B	19.77***
43. Röhre지수	1.27 B	1.57 A	1.25 B	159.34***
44. 체중	65.5 B	75.3 A	65.3 B	25.29***

** : $p < 0.01$, *** : $p < 0.001$.

· Duncan test결과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

〈표 7〉 하반신 체형별 특징

체형	출현율	특성
1	168명 (47.2%)	하반신의 길이는 평균과 비슷하고 굽기는 가늘며, 허리와 배부위는 납작한 체형으로 평균형에 가까운 체형
2	50명 (14.0%)	하반신의 길이는 세 체형 중 가장 짧으며, 굽기는 가장 굽은 체형으로 약간 비만한 체형
3	138명 (38.8%)	세 체형 중 하반신의 길이가 가장 길고 굽기는 가는 체형으로 허리와 배부위는 둥근 체형

중정도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다리길이와 키에 대한 인식은 거의 모든 높이항목의 측정치에서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키는 체중과도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체중에 대한 인식은 비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둘레항목, 너비항목, 두께항목의 실제 측정치와

중정도 이상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20대 남성의 실제 측정치와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표 10〉과 같다. 실제 측정치의 너비, 두께, 둘레 항목은 둘레항목에 대한 만족도에서 부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나 둘레는 작은 것에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측정치의 높이항목은 다리길이, 밀위길이, 키, 체중과 유의적 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키에 대한 만족도는 거의 모든 측정치와 유의적 상관이 나타났다. 다리길이에 대한 만족은 위앞엉덩뼈가시점높이와 엉덩이높이와 중정도 상관을 나타내며, 키에 대한 만족은 높이항목과 바지길이의 실제 측정치에서 중정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남성의 하반신에 대한 만족도는 실제 측정치의 둘레항목보다는 높이항목과 상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식도와 측정치와의 상관 정도에 비해 만족도와 측정치의 상관은 낮은 것으로 보아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실제 측정치보다는 자신의 인식에 더 많이 좌우

〈표 8〉 하반신 체형별 인식도와 만족도

신체부위		체형	체형 1	체형 2	체형 3	F-value
		인식도	허리둘레	2.99 B	3.92 A	2.65 B
	배둘레	2.83 B	4.00 A	2.91 B	36.74***	
	엉덩이둘레	3.05 B	4.00 A	2.88 B	33.41***	
	넙다리둘레	3.12 B	4.00 A	2.84 B	26.58***	
	장딴지둘레	3.08 B	3.88 A	2.78 C	25.20***	
	발목둘레	2.74 A	3.12 A	2.43 C	12.41***	
	다리길이	2.87 A	2.52 B	2.91 A	4.93**	
	밀위길이	3.01	2.96	2.91	1.51	
	키	2.85 A	2.36 B	2.88 A	5.91**	
	체중	2.82 B	3.88 A	2.62 B	37.27***	
만족도	허리둘레	3.17 A	2.44 C	2.74 B	15.04***	
	배둘레	3.06 A	2.12 C	2.65 B	18.51***	
	엉덩이둘레	3.08 A	2.40 B	3.03 A	8.66***	
	넙다리둘레	2.81	2.76	2.91	0.55	
	장딴지둘레	2.99	2.84	2.86	0.79	
	발목둘레	3.18 AB	3.28 A	2.93 B	3.92*	
	다리길이	2.77 A	2.24 B	2.90 A	6.43**	
	밀위길이	3.11	3.00	3.16	0.65	
	키	2.50 AB	2.24 B	2.70 A	2.63	
체중	2.86 A	2.44 B	2.62 AB	3.55*		

* : $p < 0.05$, ** : $p < 0.01$, *** : $p < 0.001$.

Duncan test 결과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

〈표 9〉 실제 측정치와 인식도와의 상관관계

부위	인식도									
	1	2	3	4	5	6	7	8	9	10
1. 키	.71	.14**	.16**	.12*	.10	.16**	.57**	.24**	.80**	.19**
2. 앞허리높이	.14**	.31**	.27**	.20**	.19**	.18**	.51**	.29**	.70**	.31**
3. 옆허리높이	.17**	.31**	.27**	.19**	.16**	.19**	.55**	.27**	.71**	.29**
4. 뒤허리높이	.16**	.28**	.24**	.19**	.15**	.20**	.57**	.28**	.71**	.27**
5. 배꼽높이	.12*	.12*	.13*	.10	.07	.13*	.57**	.25**	.71**	.16**
6. 배높이	.13*	.14*	.14**	.12*	.09	.11*	.57**	.27**	.61**	.19**
7. 위앞엉덩뼈가시집높이	.07	.10	.12*	.08	.04	.07	.55**	.27**	.66**	.13*
8. 넓다리높이	.07	.14**	.13*	.12*	.10	.18**	.41**	.23**	.54**	.19**
9. 살높이	.07	.04	.02	.01	-.01	.07	.59**	.25**	.66**	.03
10. 엉덩이높이	.11*	.18*	.11*	.08	.06	.13*	.62**	.26**	.71**	.13*
11. 무릎높이	.05	.18**	.20**	.14*	.17**	.15**	.44**	.24**	.53**	.21**
12. 장딴지높이	-.02	.10*	.05	.05	-.05	.05	.44**	.20**	.49**	.11*
13. 바깥복사점높이	.03	.17	.19**	.18**	.17**	.21**	.28**	.14**	.37**	.30**
14. 허리너비	.29**	.58**	.49**	.43**	.39**	.33**	.23**	.20**	.35**	.62**
15. 배너비	.31**	.62**	.55**	.49**	.44**	.42**	.20**	.23**	.39**	.64**
16. 위앞엉덩뼈가시점너비	.22**	.52**	.50**	.45**	.41**	.33**	.22**	.23**	.44**	.56**
17. 엉덩이너비	.27**	.52**	.51**	.46**	.40**	.36**	.29**	.26**	.52**	.61**
18. 넓다리너비	.25**	.54**	.56**	.54**	.48**	.42**	.15**	.26**	.35**	.63**
19. 무릎너비	.22**	.45**	.43**	.42**	.43**	.40**	.09	.19**	.29**	.50**
20. 장딴지너비	.22**	.46**	.50**	.49**	.58**	.42**	.15**	.21**	.35**	.53**
21. 발목너비	.15**	.33**	.33**	.25**	.28**	.32**	.19**	.16**	.29**	.29**
22. 허리두께	.28**	.61**	.50**	.43**	.40**	.30**	.06	.11*	.20**	.62**
23. 배두께	.24**	.62**	.49**	.41**	.40**	.34**	.08	.13*	.21**	.64**
24. 엉덩이두께	.29**	.55**	.54**	.42**	.41**	.35**	.10	.17**	.21**	.63**
25. 넓다리두께	.29**	.57**	.60**	.61**	.53**	.46**	.08	.22**	.26**	.67**
26. 무릎두께	.12*	.25**	.27**	.28**	.22**	.24**	.21**	.17**	.39**	.35**
27. 장딴지두께	.27**	.45**	.48**	.48**	.57**	.49**	.20**	.31**	.39**	.52**
28. 발목두께	.21**	.31**	.29**	.27**	.34**	.31**	.15**	.25**	.29**	.33**
29. 허리둘레	.32**	.65**	.57**	.49**	.45**	.34**	.14**	.18**	.30**	.70**
30. 배둘레	.32**	.67**	.58**	.52**	.46**	.38**	.19**	.19**	.35**	.71**
31. 엉덩이둘레	.16**	.56**	.56**	.51**	.46**	.45**	.29**	.30**	.48**	.66**
32. 넓다리둘레	.28**	.59**	.59**	.57**	.53**	.48**	.15**	.23**	.31**	.69**
33. 무릎둘레	.21**	.46**	.50**	.45**	.39**	.39**	.24**	.21**	.48**	.63**
34. 장딴지둘레	.29**	.57**	.63**	.61**	.69**	.55**	.15**	.24**	.41**	.67**
35. 발목둘레	.21**	.41**	.52**	.51**	.50**	.50**	.15**	.15**	.37**	.57**
36. 발위길이	.14**	.39**	.35**	.27**	.22**	.16**	.11*	.12*	.36**	.35**
37. 엉덩이길이	.12*	.34**	.29**	.18**	.17**	.21**	.16**	.12*	.32**	.32**
38. 바지길이	.12*	.25**	.23**	.17**	.14**	.16**	.55**	.27**	.72**	.25**
39. 허리편평율	.09	.27**	.18**	.16**	.15**	.06	-.20**	-.07	-.12*	.23**
40. 배편평율	-.07	.08	-.02	-.05	-.01	-.08	-.13*	-.12*	-.21**	.09**
41. 엉덩이편평율	.17**	.33**	.32**	.21**	.23**	.19**	-.09	.02	-.11*	.37**
42. 넓다리편평율	.17**	.25**	.28**	.31**	.27**	.23**	-.08	.04	-.04	.32**
43. Röhler자수	.31**	.63**	.62**	.59**	.54**	.43**	-.11*	.13*	.07	.73**
44. 체중	.30**	.61**	.62**	.57**	.51**	.47**	.29**	.27**	.55**	.73**

*: $p < 0.05$, **: $p < 0.01$.

1. 허리둘레, 2. 배둘레, 3. 엉덩이둘레, 4. 넓다리둘레, 5. 장딴지둘레, 6. 발목둘레, 7. 다리길이, 8. 발위길이, 9. 키, 10. 체중.

<표 10> 실제 측정치와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부위	만족도									
	1	2	3	4	5	6	7	8	9	10
1. 키	-.04	.00	-.09	-.09	-.02	.05	.48**	.24**	.63**	.11*
2. 앞허리높이	-.11*	-.13*	-.17**	-.12*	-.05	.06	.43**	.21**	.60**	.07
3. 옆허리높이	-.10	-.10	-.11*	-.11*	-.06	.06	.45**	.21**	.59**	.10
4. 뒤허리높이	-.11*	-.10	-.06	-.11*	-.07	.04	.45**	.17**	.58**	.08
5. 배꼽높이	-.02	.03	-.08	-.10	.01	.05	.49**	.27**	.60**	.10
6. 배높이	-.05	-.05	-.09	-.07	.02	.08	.42**	.23**	.52**	.10
7. 위앞엉덩뼈가시점높이	.00	.05	-.03	-.05	.03	.13*	.51**	.28**	.56**	.15**
8. 넓다리높이	-.06	-.05	-.11*	-.04	.03	.01	.35**	.08	.39**	-.03
9. 살높이	-.03	.05	.01	-.05	-.01	.01	.49**	.22**	.55**	.09
10. 엉덩이높이	-.02	.00	-.05	-.05	.00	.06	.54**	.27**	.62**	.12*
11. 무릎높이	-.06	-.06	-.07	-.01	-.03	.09	.32**	.16**	.38**	.01
12. 장딴지높이	-.02	.03	-.02	-.02	.05	.07	.33**	.26**	.47**	.16**
13. 바깥복사점높이	-.06	-.08	-.09	-.11*	-.13*	-.02	.14*	.07	.27**	.05
14. 허리너비	-.23**	-.36**	-.28**	-.13*	-.14**	.01	.08	-.02	.19**	.00
15. 배너비	-.27**	-.39**	-.26**	-.19**	-.17**	.04	.11*	-.02	.23**	-.08
16. 위앞엉덩뼈가시점너비	-.14**	-.26**	-.18**	-.10	-.07	.10*	.20**	.08	.29**	-.02
17. 엉덩이너비	-.12*	-.23**	-.25**	-.10	-.07	.04	.21**	.07	.39**	.09
18. 넓다리너비	-.18**	-.34**	-.27**	-.11*	-.08	.03	.06	-.03	.21**	.06
19. 무릎너비	-.22**	-.30**	-.19**	-.09	-.09	.05	.06	-.02	.20**	.07
20. 장딴지너비	-.09	-.21**	-.20**	-.08	-.11*	.05	.07	-.01	.20**	.09
21. 발목너비	-.11*	-.22**	-.11*	-.10	-.06	.03	.12*	.04	.19**	.04
22. 허리두께	-.34**	-.43**	-.25**	-.12*	-.18**	-.01	-.04	-.05	.12*	-.05
23. 배두께	-.30**	-.45**	-.23**	-.08	-.16**	.01	-.02	-.04	.15**	-.06
24. 엉덩이두께	-.26**	-.39**	-.26**	-.11*	-.11*	.07	.04	-.05	.14**	.05
25. 넓다리두께	-.22**	-.35**	-.24**	-.11*	-.09	-.01	.01	-.09	.15**	.07
26. 무릎두께	-.10	-.12*	-.19	-.12*	-.05	.02	.15**	.04	.26**	.16**
27. 장딴지두께	-.14**	-.16**	-.14**	-.06	-.06	.08	.15**	-.01	.27**	.10
28. 발목두께	-.08	-.15**	-.10	-.06	-.09	.00	.12*	.03	.19**	.11*
29. 허리둘레	-.30**	-.43**	-.31**	-.13*	-.15**	.03	-.00	-.07	.16**	-.04
30. 배둘레	-.29**	-.43**	-.30**	-.14**	-.13*	.04	.08	-.03	.24**	-.06
31. 엉덩이둘레	-.14**	-.25**	-.26**	-.05	-.06	.07	.14**	.01	.33**	.07
32. 넓다리둘레	-.19**	-.34**	-.24**	-.08	-.05	.06	.08	-.05	.18**	.07
33. 무릎둘레	-.19**	-.25**	-.26**	-.12*	-.05	.04	.12*	.00	.29**	.03
34. 장딴지둘레	-.09	-.22**	-.26**	-.10	-.05	.09	.05	-.05	.23**	.07
35. 발목둘레	-.02	-.14**	-.20**	-.07	-.03	.02	.01	-.10	.18**	.11*
36. 밑위길이	-.08	-.20**	-.10	-.09	-.09	.06	.05	-.06	.25**	.01
37. 엉덩이길이	-.09	-.09	-.11*	-.14**	-.03	.02	.08	.03	.22**	.01
38. 바지길이	-.07	-.07	-.12*	-.13*	-.06	.04	.44**	.19**	.60**	.09
39. 허리편평율	-.26**	-.25**	-.05	-.02	-.10	-.03	-.17**	-.06	-.04	-.07
40. 배편평율	-.07	-.13*	.00	.15**	.01	-.05	-.17**	-.03	-.09	.04
41. 엉덩이편평율	-.25**	-.33**	-.15**	-.06	-.08	.07	-.10	-.11*	-.10	.01
42. 넓다리편평율	-.13*	-.14**	-.05	-.04	-.04	-.06	-.07	-.11*	-.03	.05
43. Röhler자수	-.24**	-.38**	-.31**	-.10	-.11*	.03	-.20**	-.16**	-.09	-.05
44. 체중	-.23**	-.32**	-.32**	-.15**	-.11*	.06	.15**	.02	.35**	.03

*: $p < 0.05$, **: $p < 0.01$.

1. 허리둘레, 2. 배둘레, 3. 엉덩이둘레, 4. 넓다리둘레, 5. 장딴지둘레, 6. 발목둘레, 7. 다리길이,
8. 밑위길이, 9. 키, 10. 체중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재은⁶⁾, 이영주⁷⁾ 등의 20대 여성들의 연구결과와도 같게 나타났다.

IV. 결 론

본 연구는 20대 남성의 하반신 체형에 대한 인식과 실제 체형과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반신 체형을 구성인자는 인자 1은 인체의 횡적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들레항목, 너비항목, 두께항목을 나타내는 인자, 인자 2는 인체의 종적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높이항목, 바지길이항목을 나타내는 인자, 인자 3은 무릎에서 발목부위의 너비와 두께항목을 나타내는 인자, 인자 4는 허리편평율과 배편평율로 나타났다.
2. 하반신은 군집분석에 의해 모두 3개의 체형으로 분류되었다. 체형 1은 하반신의 길이와 굵기가 평균에 가장 가까운 체형, 체형 2는 하반신의 길이는 평균형보다 짧고 굵기는 가장 굵은 체형으로 약간 비만한 체형, 체형 3은 하반신 체형의 길이가 가장 길고 굵기는 가는 체형으로 나타났다.
3. 하반신 체형별 인식도는 체형에 관계없이 키와 다리길이를 제외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이 실제 측정치와 비슷하게 나타나 자신의 실제 체형을 잘 인식하였으며, 체형별 만족도는 들레항목이 굵고 길이항목은 짧은 것에 불만족하였다.
4. 실제 측정치와 인식도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실제 측정치와 만족도는 들레항목에서 부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키에 대한 만족도는 거의 모든 측정치와 유의적 상관이 나타나 20대 남성의 하반신에 대한 만족도는 실제 측정치의 들레항목보다는 높이항목과 상관이 높았다. 그러나 인식도와 측정치와의 상관정도에 비해 만족도와 측정치의 상관은 낮게 나타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실제 측정치보다는 자신의 인식에 더 많이 좌

우되었다.

이상에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신체이상형을 연구하여 체형에 대한 적합성과 동시에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의복설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는 실험대상의 체형변이가 비교적 적은 20대 남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체형의 변화와 개체차가 큰 20대 이전, 이후의 연령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계선 (1993). “成人男子의 身體計測과 要因構造分析: 大邱·慶北地域을 中心으로”.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구자 (1991). “남성복의 치수규격을 체형분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옥 (1983). “成人男子의 下半身計測에 關한 研究: 大學生을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애 (2000). “청년기 남성의 체형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원, 윤종희 (1999). “나체상태와 외모관리 후의 신체만족도 차이-20대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권 2호.

김창현 (1999). “男子大學生의 身體意識과 衣服行動에 대한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석혜정 (2000). “20대 남성 체형 연구: 의류치수체계 개발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성원 (2001). “성인 남성의 신체 만족도와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신정 (1991). “의복구성을 위한 20대 남성의 체형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주 (1998). “중년기 여성의 하반신 형태에 따른 인식도와 슬렉스 입체제단에 관한 연구”. 영남대

6) 정재은, 전계서, p. 107.

7) 이영주, “중년기 여성의 하반신형태에 따른 인식도와 슬렉스입체제단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pp. 54-55.

-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희, 이은영 (1996). "의복과 자기 이미지". 한국 의류학회지 20권 1호.
- 정재은 (1993). "20대 여성의 實際 體型과 理想型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은, 이순원 (1998). "20대 남성의 실제 체형과 신체 이상형(理想型)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 회지 17권 2호.
- 韓國標準科學研究院 (1997). 産業製品의 標準值 設定을 위한 國民標準體位 調査 報告書. 과찬: 國立技術品質院.
- 홍은희 (1996). "20대 남자 하반신의 유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河村房代, 大村知子, 本桃代, 長田直子 (1983). "男子分析による成長の體型の研究 (第一報): 男子の年齢的變化". 家政學雜誌 34卷 12号.
- 平澤和子 (1985). "平面製圖法における形態因子 (第一報)". 家政學雜誌 36卷 3号.
- Douty, H. I., & Brannon, E. L. (1984). "Figure attractiveness: male and female preference for female figure".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Vol. 13, No. 2.
- Lennon, S. J. (1988).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Vol. 16, No. 3.